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6

성경의 올바른 사용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신령한 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악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미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복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유익을 알려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반박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부인하여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는 몽상가들이 모든 세대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위대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개를 숙여야 한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권위나 지혜에서 나온 교리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률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명예를 메야 합니다.”

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예언서와 복음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고자 한다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그는 그 누구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복종해서는 안 되며, 모든 성경 말씀이 존엄하고 그 모두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분에 따라 성경 말씀을 고르거나 발췌해서는 안 되며, 성경 전체를 예외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그 당시에 기록되고 있던 말씀이나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이 쓴 말씀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서는 영원히 보존되고 전해져야 할 교리이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설교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제쳐 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주막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예

언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터키인들에게서처럼 그들 가운데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려면 율법과 예언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율법과 예언서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하며, 그 말씀은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바꿀 수 없는 영속적이고도 불멸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만 유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시적인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날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가 약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늘과 땅이 썩어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도록 힘을 써야 하며,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지혜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명령하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제시된 두 가지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봅시다. 사도는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으며, “유익하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사랑하고 그것을 매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감히 하나

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보잘 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성경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성경이 만들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며 그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않으며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성경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유익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익한 일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면, 선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유익이 되지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이 성경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성경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거기에서 유익을 얻겠다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 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나 선지자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그것이 유한한 한 인간의 족적일 뿐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를 불태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가면과 덮개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에게 속고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교리의 독이 금제 컵에 담기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귀한 슬로건 밑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보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사탄의 환상이나 사람들이 꾸며 낸 동화가 아니라 사실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며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신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권위나 지혜에서 나온 교리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률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명에를 메야 합니다.

- 존 칼빈, 『경건의 비밀』, 김동현 역 (서울:지평서원, 2008), 195-99